



기획시리즈



임 경 빈
전 서울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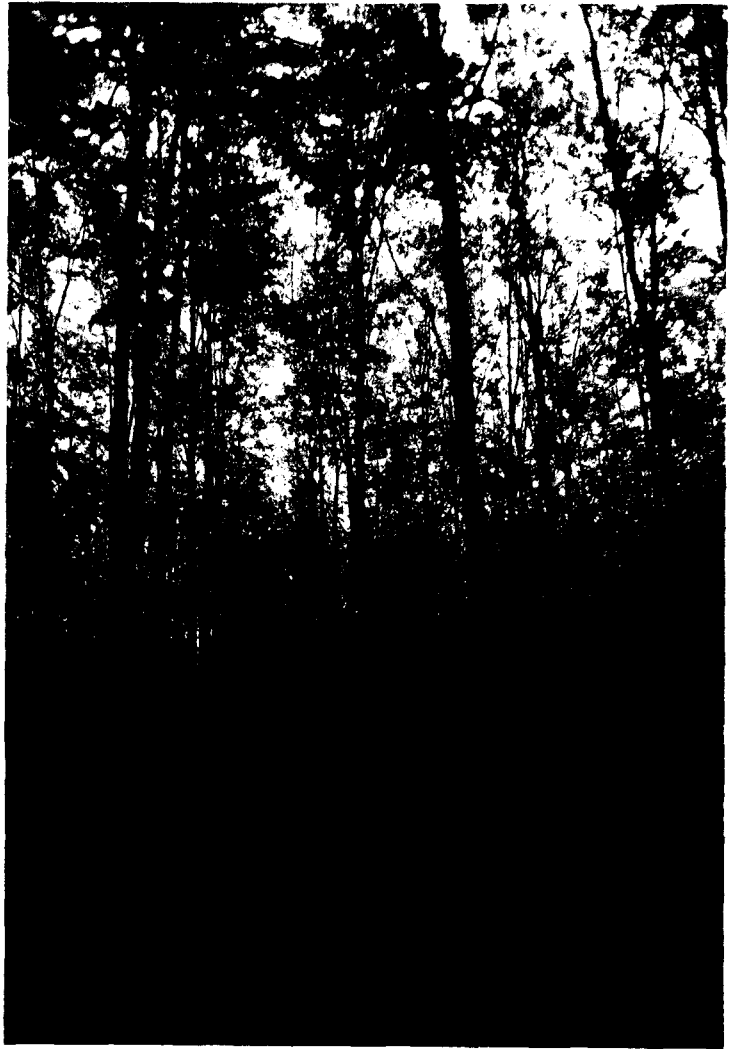
조경수목 산책 (Ⅱ X VII)

— 아카시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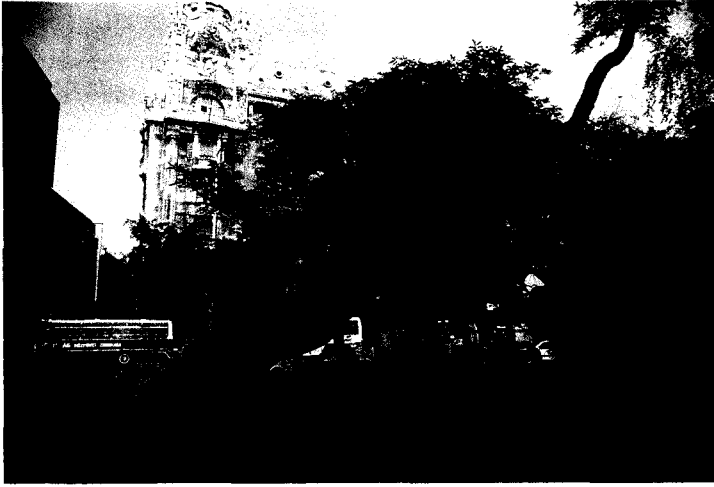
이름과 그 고향

나에게 훌륭하다는 인격을 남긴 몇 분은 철두철미하게 온유하고 성내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성의 사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고 속도 걸도 부드러운 그러한 인격의 사람, 평생 남을 욕해보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것으로 나에게 비추인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도 오래 만나다 보면 결점이 나타나는 법이므로 좋은 사람은 잠깐 만나고 좋을 때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오래 만나도 결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나는 존경하는 정태현 박사에 언급하고자 한다.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란 인상 그것이 거의 전부였다. 모나지 않고 자량이 없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남을 도우려하는 선



▲생산성이 높은 아카시아의 조림지 헝가리. 구드지방 12년생 199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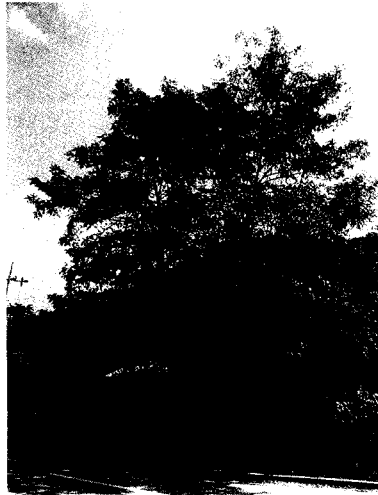
◀ 헝가리 아카시아의 장로 200년생 부다페스트 시내 1997.6.5

생님이였다. 정박사는 1943년에 조선삼림식물도설(朝鮮森林植物圖說)이란 명저를 내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1956년에 한국식물도감 목본편이 신지사(新志社)에서 발행되었다. 흑백그림은 그냥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1943년 일본어로 낸 책에는 우에끼(植木) 교수가 서문을 쓰고 있다. 우에끼 교수도 일본사람이라고 하나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다. 아량이 넓고 사리가 분명한 분이였다. 정태현박사의 책에 「아가시나무」의 기재가 있다. 한자명은 자회(刺楸)이다. 가시(刺)가 있는 회화나무(檉)라는 뜻이고 잎의 모양은 우상복엽(羽狀複葉)으로 서로 닮은 점이 많고 함께 콩과에 소속된다. 다음 학명과 외국 명칭을 들어본다.

학명 : *Robinia pseudoacacia* L.

일본명 : 니세아카시아, 일본에서 임업인 또는 임학계에서 쓰는 명칭 하리엔주, 일본에서 일반 식



▲길가 쉼터 아카시아의 녹음. 강원도 평창군내 소견 1994.9.30

물학자들이 쓰는 명칭. 일본명은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명 : False acacia 또는 Black locust

우리말 명칭 : 아가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아나무, 아카시아 등

이 나무가 약 100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식재를 보게될 때 당시 「아카시아」 또는 「니세아카

시아」라는 이름으로 보급되고 홍보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아카시아」라고 불렀다. 그런데 식물학상으로는 아카시아(*Acacia*)라는 속이 따로 있고 역시 콩과에 속하며 호주에 많고 아프리카의 사바나에도 있다. 건조한 아열대부터 난온대에 분포의 중심을 가지는데 내한성은 약하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심지 않고 있다. 발음상으로 *Acacia*속이 아카시아이지만 *Robinia*를 아카시아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세계유용식물사전. 平凡社. 1989). 아카시아 속의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신목(神木)으로 쳐 올리고 생명력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한다. 아카시아의 어원(語源)은 그리스어의 아키스(*Akis*, 돌기 또는 바늘의 뜻)에서 온 것으로 가지에 발달하는 가시를 뜻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카시아 속이나 로비니아속이나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널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로비니아속의 미국 원산인 black locust를 아카시아로 호칭하면 호주 원산의 아카시아 속명에 통하는 점이 있어서 혼란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이다. 일본사람들도 「니세아카시아」 또는 「가시회화나무」로 말해서 「아카시아」라는 말은 피하

▶오래된 아카시아 숲. 경기도 광릉숲 안. 1994. 8.3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정태현 박사도 「아카시나무」로 말한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일본명의 「니세아카시아」는 false acacia(거짓아카시아 또는 아카시아에 닮았다는 뜻) 또는 학명에 나타나는 Pseudoacacia(거짓아카시아의 뜻)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일반 식물학자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시회화나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입업계의 통칭 즉 니세아카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에는 어떤 묘미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웹스터영어사전(1983)을 펼쳐보면 아카시아(acacia)의 발음은 「아케이셔」로 되어 있고 그 뜻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호주원산의 소위 아카시아 속의 나무들을 뜻한다.

(2) 미국원산의 소위 로비니아 속의 나무들을 뜻한다.

또 참고로 일본 삼성당(三省堂)에서 출간한 영어사전(college crown E-J dictionary 제2판 2301쪽)에도 아카시아(acacia)에 대한 설명에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아카시아(호주, 아프리카 등 열대 또는 아열대지방에 자라는 수목으로 종류가 많다. 목재가 견고하므로 철도침목 또는 조선재로 이용한다.)

(2) 니세아카시아 또는 하리엔주(가시회화나무)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이것을 조경수로 심는다. 일본에서 아카시아라 하면 대개 이것(false acacia)을 뜻한다. 그리스어의 아카키아(akakia)는 날카로운 돌기(sharp point)를 뜻한다.

이 두 사전의 내용은 서로 통하

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요컨대 아카시아(acacia)라 하는 일반 나무 명칭은 첫째로 아카시아 속의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에 흔한 로비니아속의 나무이름으로도 통상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쯤 논의를 하고 나서 정태현 박사의 「아카시나무」는 아카시아속(acacia genus)의 명칭과 격리시키고자 하는 섬세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외국사전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아카시아」라 해도 국제적 용어 수준에 있어서 얼마든지 수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카시나무가 옳으나 아카시아가 옳으냐하는 논쟁(?)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말(용어)이라는 것은 국민(사회인류)이 소유하는 문화재(文化財)이지 누구도 사용을 강요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일본사람들이 니세아카시아와 하리엔주를 함께 사용



▲서울 난지도의 아카시아 거목. 1986.5.11



▲소중한 아카시아의 목재 헝가리, 입업연구원 식물원 내 1997.6.2 ▲아카시아 가로수, 강원도 평창군 1994.6.10

한다고 해서 일본에 있어서 이 나무에 대한 과학발전이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태현 박사의 충정을 이해하고 그분처럼 부드러운 음색 「아가시나무」를 좋아해 본다. 선배가 시작해 놓은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의 예의 같게도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국민정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이때 아가시나무는 국민의 뜻에서 우려나온 것이 못되고 학자의 구상이 그대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어 마음 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오래가다보면 성숙되고 마는 성향이 있다.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생활 문화적인 나무이름이 있다. 미국사람들이나 일본사람들이 「아카시아」로 불러오는 관행에 대해서 또 그것이 식물학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들은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 생활문화에 바탕하는 그러한 이름이 사랑을 받는다. 아카시아 꿀이 아카시아 껌이 아카시아치약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명칭이다. 다음 노래가사 중 아카시아 흰 꽃은 너무나 황홀한 구절의 하나이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당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아카시아가 짜릿한 맛을 주는 감미로운 음향 가치의 용어라면 아카시아에 향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말 즉 용어에는 이유가 없다. 까다롭고 어려운 논의보다는 기분이 좋고 또 남들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다는 것이다.

어떤 나무인가

아카시아는 이제 우리의 나무로 되어 버렸다. 우리의 산야를 덮고 흰 꽃의 타래타래가 주렁주렁 넘실거리고 흰 구름이 산기슭에 또 마을 뒤에 내려앉은 듯한 경관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 원천이 미국이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은행나무가 중국원산이라 해서 우리의 환경공간의 이단자 취급을 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그간 겪어온 갖은 역사적 압력에 물들어 이유 없이 다른 나라의 것을 저항의 선상에 올려 놓는 일이 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것이다. 벼, 감자, 포도, 호박, 고추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해서 색다른 대접을 하지 않는다. 모두 우리의 것이다. 가난하고 슬픔이 많은 백성일수록 배타성이 강하다. 여기에 하나 할말이 있다. 그것은 뒤에 더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자는 1997년 6월 초에 헝가리에 가서 그곳의 아카시아 임업을 견학한 일이 있다.

헝가리의 임업을 떠받치고 있는 수종은 아카시아이다. 또 아카시아 풀이 흐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또 헝가리이다. 아름다운 다뉴브 강가에 고색 창연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다. 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진입하는 길가에 아카시아 노거목이 줄로 심어져 다뉴브강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헝가리로 보아 아카시아는 외래수종이다. 왜 그들은 외래수종인 아카시아를 자랑할 역사적 전통의 의사당 건물을 둘러봤을까. 어리석어서였을까. 그들의 역사를 가볍게 여긴 탓일까. 아니다. 좋은 나무이고 값진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그 나라에 토착되어 있는 많은 각종 나무를 가지고 있다. 임학도 임업도 발달해 있는 나라이다.

국회의사당 건물 주변이 아카시아로 장식되어 있는 데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그들의 설계에 경의를 표했다.

이에 더해서 헝가리의 정부공무원은 아카시아를 별다른 차원의 수종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각종 통계 가령 수종별 삼림면적 또 임상별 목재 축적량 그리고 조림물량 통계 등등에 있어서 일단 국산수종과 외래수종으로 크게 두갈래로 나누고 있었는데 아카시아를 헝가리 국산수종에 넣고 있었다. 그들이 아카시아의 원산지가 미국이란 것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 필

▶아카시아 가로수 헝가리 국회의사당 앞 부다페스트 1997.6.5



자와 그곳 임업시험장 부장장과 의 대화의 일부를 다음에 든다.

「당신네 나라에 아카시아가 들어온 지 오래되는가.」

「약 200년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왜 아카시아를 국산 토착수종으로 취급해서 임업통계 처리를 하고 있는가.」

「20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헝가리의 임업사정에 맞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외래수종으로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도 미국에는 아카시아의 유전성의 다양성이 헝가리의 그것보다 더 폭넓을 것이고 또 미국인들은 아카시아를 미국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초기에 미국의 각지에서부터 아카시아를 도입해서 그 유전자를 보존해 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카시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그 보존이 잘되지 못해서 많은 것을 상실했다. 앞으로 미국이 아카시아에 관심을 가지

게 된다면 그 자원을 헝가리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카시아의 원산지는 헝가리란 말인가.」

「바로 정곡을 찌른 견해이다. 나무를 소중하게 다루는 나라가 원산지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카시아의 원산지를 미국으로 보지 않는다.」

의미 깊은 대화의 한 토막이었다고 본다.

무척 한국적인 수종, 향기 좋은 수종, 흰구름같은 꽃으로 마을과 강산을 감싸는 수종, 부드러운 푸름이 있고 깊은 사색을 좋아하는 나무, 시와 노래에 가득한 미학의 나무, 그것이 곧 아카시아이다. 정태현박사의 아카시아나무이다.

아카시아의 노래

일본의 가토(加藤)교수는 아카시아(Acacia)를 제목으로 한 영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순수식물학자는 아니였겠지만 식물민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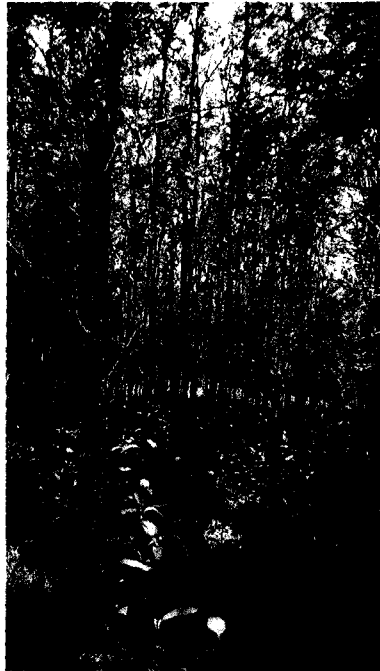
(植物民俗誌)를 내고 있어서 식물에 대한 소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는 아카시아에 대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아카시아(Acacia) : 일본명칭은 침괴(針槐) 또는 그대로 아카시아. 콩과에 속하는 Robinia속 또는 Acacia 속의 나무. 아카시아라 하면 영국과 일본에서는 보통 false acacia를 말하고 로비니아(Robinia)(R. pseudoacacia)를 뜻한다. 속명에 로비니아(Robinia)라고 있는 것은 캐나다로부터 그 종자를 처음 프랑스로 옮겨간 사람 Jean Robin을 기념하기 위해서 린네(Linnaeus)가 명명한 것이다. 영국에 아카시아가 들어간 것은 그 뒤 곧 미국의 버지니아주로부터였다.

이상과 같은 가토교수의 설명을 읽으면 그는 아카시아에 대한 일련의 공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아카시아(Acacia)는 미국산의 수종과 호주 등 열대 또는 아열대산의 수종에 공용(共用)되는 명칭이다. 그러나 이곳에 든 그의 시에서 미국산 수종 즉 로비니아속(Robinia)의 종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주변의 아카시아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영시작자의 소개는 생략하고 약간 긴 시인데 그 중 한 단락만 뽑아본다.

모든 나무 가운데서

아카시아의 노거목은
나목(裸木)으로 서 있다.
스산한 굽은 검은 가지가
뜰과 하늘로 뻗고 있다.
다른 나무들은
봄기운에 들떠
지난겨울의 쓰라림도 잊고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성숙한 연공(年功)의 아카시아
차분하게 지난 겨울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아카시아 조림지, 헝가리 헬베키아, 1997.6.6

느긋이 아름다운 새 잎을 장만한다.

이 시는 필자가 나름대로 다듬은 곳이 많다. 뭐니 해도 아카시아 노목의 성숙된 철학의 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아카시아를 다시 쳐다보아야겠다. 이러한 겨울의 아카시아가 찬미되고 있는가 하면 다음 시는 그 잎과 꽃의 화려함이 우리의 자세를 다르게 가다듬어 준다.

협한 바위 틈 사이에
아카시아의 미소가 있다.
아름다운 머리칼 나무긴다.
외로우나 감미롭다.
황야에서 꽃 핀다해도
우리의 사랑은 더하다.

Our rocks are rough, but smiling there

The acacia waves her yellow hair;

Lonely and sweet, nor loved the less

For flowering in the wilderness.

외로운 곳에 홀로 서서 꽃을 피운다해서 우리의 사랑이 적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카시아는 시인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고 있다. 우리도 이 나무의 미를 찾아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좋은 나무들

임학과 임업을 공부해 오면서 비교적 긴 세월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 자연 그간 각종의 터무니없는 낭설도 듣고 했다. 그러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있을 법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는 민족이 깨우치지 못한 집단일수록 허무맹랑한 소문들이 더 많다. 또 가난하고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더 흔하다. 필자가 듣고 경험한 이야기 몇 토막이 있다. 하나는 적송망국론(赤松亡國論)이고 또 하나는 폐병유발의 발원(發源)인 플라타너스가 있고 세 번째는 아카시아가 있다. 이들 나무는 모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심거나 가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적송망국론이란 유식한(?) 용어를 듣고 고집이 센 인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소나무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고 이것은 일본사람들의 처사라고 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잘못된 여론이다. 그러나 그때 그 여론은 큰 힘을 가지고 퍼져나갔다. 플라타너스의 잎 뒤에는 무서운 털이 있어서 이것이 떨어질 때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우리는 폐병으로 죽는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플라타너스를 끊어 없애자는 진지한 의견도 나돌았다. 이것도 잘못된 여론이었다. 지금 아카시아도 미국나무로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국력을 총동원해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못살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며 나무 안에는 좋지 못한 독기가 있어서 우리 국토를 못쓰게 만든다는 것이다. 타당성 없는 이야기들이다.

아카시아는 목재로서, 꽃은 꿀로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환경의 나무로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나무이다. 아카시아에 대한 욕설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또 한번 다음에 등장할 또 하나의 수종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기껏해야 소나무는 나라를 망친다. 플라타너스는 국민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친다. 아카시아는 나라를 못쓰게 만든다 등등쯤의 이야기나 하는 여



▲아카시아 서남당나무 경복 성주 월항 지방리
DBH= 117cm 1995.6.30

유를 가진 사람들은 쓸만한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지구상의 모든 나무와 풀은 고마운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선용(善用)할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해 가고 있다.

내가 만난 아카시아 한그루

우리나라 각처에는 초기쯤에

심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오래된 아카시아가 자라고 있다. 나는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아카시아가 서 있던 말을 듣고 1995년 6월 30일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했다.

길가에 서 있는 아카시아의 거목은 수고 약 16m, 가슴높이 줄기둘레 368cm, 뿌리목줄기둘레 600cm, 가지밑 줄기높이 350cm에 이르고 있었다. 흉고직경은 117cm로 계산된다. 줄기는 세로골이 지고 수피는 섬유질로 갈라지고 있었다. 내가 본 아카시아 중에서는 가장 큰 나무이다. 녹음수, 정자나무로 이용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신성(神性)같은 것을 부여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 먼저 이 나무 아래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올려 교통사고 없이 무사할 것을 기원한다. 사람이 죽어 출상을 할 때에는 이 나무 아래에서 노제(路祭)를 지내고 마을을 떠나 영원의 살 곳으로 간다는 보고를 한다. 이것은 이 나무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 수종에는 그 안에 깃들이는 신도 외국 신이겠는데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귀화시켜 어울리는 우리 국민의 성품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이 나무의 수관도 비교적 고루 발달해서 둥근 모습이다. 이곳 사람들은 아카시아를 까시나무로도 부르고 있었다.